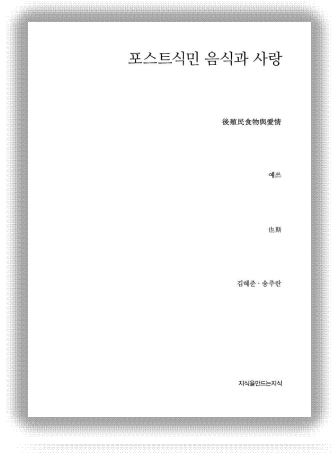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後殖民食物與愛情》, 예스 也斯 지음, 김혜준/송주란 옮김,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9)

해설

김혜준/송주란



1842년 난징조약에 의하면 '중국 황제는 영국 왕에게 홍콩섬을 양도하기로 한다. 홍콩섬은 앞으로 영원히 영국 여왕과 이후 세습되는 영국 군주들의 소유가 되며, 영국 여왕이 선포하는 법과 규칙에 따라 통치된다'라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40년 뒤인 1984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중영공동성명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홍콩 지역(홍콩섬, 가우룽 및 쑤까이를 포함하며, 이하 홍콩이라고 함)을 재통합하는 것이 모든 중국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에 대한 주권을 다시 행사하기로 결정했음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난징조약이 홍콩 식민지 역사의 출발점을 결정짓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중영공동성명은 그 종착점을 결정짓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콩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꼭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다. 1984년 이후 홍콩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민 열풍이 몰아치는 등 사회 전체가 요동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홍콩인들은 종래 자신이 누구이며 홍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별반 주의하지 않던 데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한편 스스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기 시작했다.

1984년 이래, 혹은 그 이전부터, 당연히 홍콩 문학계는 이런 상황을 작품으로 보여 주기 시작했다. 홍콩의 장래나 홍콩의 정체성 또는 홍콩과 중국 대륙 간의 차이 등에 관심을 가진 작품이 증가했고, 홍콩 반환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단편소설과

중·장편소설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홍콩성’의 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도시의 상실’ 또는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보여 주는 작품이 증가했고, 외국 이민과 관계있는 이야기가 더욱 다양하고 세밀하게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역사 회고, 신(新)이주자, 외국 이민, 도시로부터의 소외, 도시의 상실, 홍콩의 사회적 현상 등 중국 대륙과 구별되는 홍콩만의 특징 및 홍콩 반환 문제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표현함으로써, 홍콩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거나 그것을 만들어 내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1997년 마침내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다. 막상 반환이 현실화되고 나자 이상의 상황에도 다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홍콩 반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도시의 상실’보다는 현대적 대도시 자체가 가져오는 소외 현상으로서의 ‘도시의 상실’을 표현하는 작품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도시 남녀의 애정 이야기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즉, 홍콩의 정체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홍콩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룸으로써 정체성의 탐구와 추구를 내면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쓰(也斯)는 이런 홍콩 문학계의 동향과 성취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작가다. 그는 홍콩 반환 훨씬 이전부터 홍콩성과 홍콩인의 정체성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해 왔고, 소설·시·수필·홍콩식 칼럼 산문(신문의 문학 면에 수많은 고정란을 만들어 놓고 특정 작가들이 매일 또는 수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는 아주 짧은 분량의 수필이나 기타 잡문) 또는 이론 문장 등 각종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그가 알거나 상상하고 있는 홍콩과 홍콩인에 대해 알리고자 노력해 왔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특히 근년에 와서 더욱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홍콩 문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중문 문학계 전체에 걸쳐 극히 높은 평가를 받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다.

2009년에 예쓰는 과거 약 10년간에 걸쳐서 쓴 그의 단편소설 12편을 묶어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後殖民食物與愛情)》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이 단편소설집은 그의 다양한 작업 중에서도 포스트식민 시대의 홍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그만의 독자적인 시각이나 감각, 독특한 발상이나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고, 또 그 바탕에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홍콩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의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음식들을 제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다. 그에 따르면 이는 밴쿠버의 한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 문화에 대해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당시 그는 딱딱한 학술 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그 무엇인가로 홍콩 문화를 설명하고자 했고, 이에 대해 고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접하게 되는 음식에 주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음식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구체적인 것이자 맛과 빛깔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과 기억을 이어 주고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므로, 음식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고 구체적으로 홍콩과 홍콩인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그는 후일 이 아이디어를 소설 등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그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예쓰는 원래 홍콩 반환 전후의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장편소설의 형식으로 그려 내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원고 분량이 장편소설에 미치지 못했고 스스로도 계속 써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서 단편소설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디 홍콩이라는 도시는 생활 리듬이 워낙 빨라서 일반적으로 장편소설보다는 단편소설을, 단편소설보다는 수필이나 시 또는 홍콩식 칼럼 산문을 더 선호하는 곳이다. 거기다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생활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는 본업을 따로 가진 상태에서 어렵사리 작품 창작에 노력하고 있다. 아마 그가 단편소설 방식을 택한 데는 분명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단편소설들은 각각 독립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각기 퍼즐 조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은 중첩되어 등장하기 일쑤이고, 이야기 역시 순차적 시간의 흐름을 따르거나 특정한 사건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펼쳐진다.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 독자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리얼리즘 기법보다는 모더니즘 기법이나 포스트모더니즘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마술적 리얼리즘의 요소와 영화의 몽타주 수법도 가미되어 있다. 또 같은 작품 안에서도 1인칭과 3인칭의 화자가 혼용되어 있으며, 문장 서술 면에서도 화자의 회상과 독백 그리고 다른 인물과의 대화가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소설이 그 자체의 긴장과 맥락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어쩌면 일부 한국 독자의 경우 그의 소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또 이 때문에 오히려 새롭고 색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번역본에는 예쓰의 작품 중에서 6편의 단편소설과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후기인 <원톤민과 분자 요리> 등 총 7편의 글이 실려 있다. 여기에 실린 소설을 포함해서 그의 소설에는 홍콩이라는 도시의 지리와 건물, 거리와 골목, 대형 음식점과 조그만 식당, 거창한 요리와 간단한 음식, 문학작품과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와 다큐멘터리, 학술 이론과 시정 잡담 등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대표작인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은 아예 포스트식민이라는 학술 용어와 일상적인 음식 및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딱딱한 학술 이론이 아닌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그 무엇인가로 홍콩을 보여 줄 것인가 하는 고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은 화자인 '나' 스티븐과 마리안의 만남을 주로 다루고 있다. 소설 속에서 '나'는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 낮엔 헤어 살롱이지만 밤엔 바(bar)로 바뀌는 헤어 살롱 겸 바의 사장이다. 어느 날 프랑스 유학생 출신인 마리안이 헤어 살롱에 '샴푸하러' 왔다가 둘 다 음식 마니아라는 걸 알게 되고 이로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두 사람을 포함해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많

은 인물들과 각각의 장면에서, 작가는 기억·회상·독백·대화 등을 통해 그들 각자의 홍콩—결과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홍콩을 보여 준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친구들은 우리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살게 되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새로 들어왔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다.” 이 말은 포스트식민 시대의 홍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지구화라는 구심력과 지역화라는 원심력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아닐까?

<교토에서 길 찾기>는 홍콩에서 영문학과 영어를 강의하는 미국인 로저와 호텔 직원 출신의 홍콩인 아쓰우의 휴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둘은 어렵사리 함께 일본의 교토로 휴가를 가는데, 교토에 도착한 후 숙소를 찾아가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겪게 된다. 작가는 이런 에피소드로부터 비롯되는 등장인물의 반응과 느낌, 연상과 기억 등을 통해서 한때 히피였던 로저의 동양에 대한 환상, 현재 홍콩에서 겪고 있는 현실, 로저와 아쓰우의 사고와 행동 방식의 차이, 홍콩과 일본 사이의 같고 다른 등을 보여 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독자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순수한 것, 전통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란 도대체 무엇이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실제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잡종적이고, 가변적이며, 비선형적이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편 건물의 유령>은 영문학과에서 분리된 비교문학문화학과 소속의 호퐁이라는 교수가 학교에서 겪는 사소한 일상사가 주요 내용이다.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홍콩의 대학 역시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대학과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낯이 강화되는 교수들에 대한 압력과 또 교수들 간의 자잘한 갈등과 협조가 그러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밤마다 학교의 서편 건물에서 일어나는 수상쩍은 일은 어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일 독자가 유심히 본다면, 그중에서도 포스트식민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가 본다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브레히트·푸코·바흐친 등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이라든가 포스트식민주의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학술 용어 따위에서 나타나듯이, 이 작품이 간단히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독자는 작품의 제목과 내용이 그 나름대로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툰문의 에밀리>에서는 홍콩섬이 아닌 썬까지의 툰문에서 태어난 에밀리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미국인 애인 로저가 중심인물이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끊임없이 에밀리와 그녀 친구들의 출신을 강조하고, 거리와 건물 이름 등을 통해서 구석구석 그녀들의 툰문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에밀리가 일자리를 찾아 홍콩섬으로 갔다가 툰문으로 되돌아온 것, 그녀가 주로 일하는 곳이 온갖 메뉴가 다 있는 서민 음식점인 차찬텅인 것,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이 모두 강인하고 독립적이라는 것 등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혹시 예민한 독자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홍콩이 단순히 홍콩섬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외에도 가우룽, 썬까지가

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작가가 홍콩섬과 튬문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점을 적용하면서, 중국과 홍콩의 관계 내지는 전지구화와 지역화의 문제 차원에서 홍콩을 살펴보고 있음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가족만 남겨 둔 채 이민을 포기하고 혼자 홍콩으로 돌아와서 여행사 가이드를 하고 있는 로우신이 노모를 모시고 밴쿠버를 방문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주요 인물인 기러기 아빠 로우신, 이혼한 전처, 대학에 다니는 딸, 아직 어린 아들, 연로하신 노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갈등과 충돌은 단순히 1997년의 홍콩 반환이 야기한 홍콩의 이민 열풍과 그로부터 초래된 후유증을 보여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지구화라는 경제적·정치적 변화 속에서 작가는 가족의 의미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자, 크게는 인간 공동체로서 이른바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요소로서의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다. 물론 독자에 따라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부장적 전통이 사라져 가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가족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딤섬 일주>는 한때 소설을 쓰고자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홍콩 사람인 '나'와 이제는 탐정소설가로 유명해져서 홍콩으로 옮겨 온 상하이 친구 샹둥이 함께 홍콩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거를 추억하고 현재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어느 것이 주이고 어느 것이 부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들이 함께 펼쳐진다. 예컨대 로저의 서울 방문 이야기, 로우신과 그의 가족의 선전 여행 이야기, 샤오쉐의 타이완 이야기, 꺾홍과 스티븐의 마카오 이야기 등이 동시에 제시된다. 어쩌면 독자들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온갖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일시적으로 약간의 혼란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콩 자체가 것처럼 다양한 모든 것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뒤섞이고, 변화하고 있는 문화적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단순히 무질서한 혼돈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원툰민과 분자 요리>는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의 후기다. 군데군데 자신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라든가 소설 쓰기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를 설명하고 있지만, 막상 읽어 보면 그것이 후기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마치 소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독자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예쓰는 소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 면에서도 혼합적, 혼용적, 혼종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은 장르를 넘나들기도 한다. 예컨대 그의 소설은 마치 수필 같고, 그의 수필은 마치 소설 같으며, 심지어 어떤 시는 시이면서 소설 같고 시이면서 수필 같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그는 이론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이론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독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독자 자신이 읽었던 예쓰의 소설과 예쓰 자신이 말하는 예쓰의 소설을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번역 작업에는 김혜준과 송주란 두 사람이 참여했다.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 <서편 건물의 유령>, <툰문의 에밀리>는 김혜준이 번역했고, <교토에서 길 찾기>, <딤섬 일주>, <밴쿠버의 사삿집 요리> 및 <원툰민과 분자 요리>는 송주란이 초역한 후 김혜준이 수정했다. 그 외 <해설>과 <지은이에 대해>는 송주란이 기초하고 김혜준이 수정·보완했으며, 해설의 일부 내용은 也斯, <鳴謝>, 《後殖民食物與愛情》(香港: 牛津出版社, 2009), 261~265쪽; 甄嘉儀/周淑華, <“好遺憾”的也斯>, 《作家月刊》(香港) 總第52期, 2006. 10, 45~46쪽; 김혜준, <홍콩 반환에 따른 홍콩 문학의 변화와 의미>, 《중국현대문학》 제39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06. 12. 493~495쪽 등을 참고했다. 비록 공동 번역이라는 작업의 성격상 번역문의 차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옮긴이들은 초역의 수정 과정과 여러 차례의 윤독을 통해서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옮긴이들은 예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모와 문학사적 의의를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우선 옮긴이들은 어떻게 하면 다중적이고 은유적인 작가의 독특한 문체와 그것에서 표출되는 함의와 분위기를 잘 보여 줄 것인가에 주의했다. 예컨대 <포스트식민 음식과 사랑>에서 작가는 ‘흡사’라든가 ‘아마도’라는 뜻을 가진 ‘好像, 彷彿, 猶似, 似乎, 也許, 大概, 可能’ 등등의 단어를 수없이 겹쳐 씌으로써, 한편으로는 작품 전체의 불분명하고 몽롱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1997년 당시 작가 내지 홍콩 사람의 흐릿한 정서를 보여 준다. 따라서 옮긴이들은 최대한 이런 분위기와 정서를 살리면서 문장 자체 또는 앞뒤 맥락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이는 또 작가가 추구하는 홍콩성의 표현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작가는 홍콩을 간단한 몇 가지의 개념으로 단순화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을 동시적으로 보여 주려고 하는데, 이는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의 교류·접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경쟁, 식민지의 정치적 통제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언론 상황, 상업적이고 도시적인 환경과 농업적이고 향촌적인 전통 등을 포함하는 홍콩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옮긴이들은 홍콩의 지명, 홍콩인의 인명, 음식 이름 및 기타 여러 어휘나 표현을 한글로 바꾸는 데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예컨대 가능하면 홍콩의 지명은 영어식으로 표기했고, 홍콩 사람의 이름은 홍콩말(광둥말) 발음으로 표기했으며, 그 외 중국어 발음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했다. 또 음식 이름과 음식점 이름은 될 수 있는 한 한국어로 번역하되 필요시 원문인 한자를 병기했다. 특히 작가는 원문에서 중국 표준어, 광둥말,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의 어휘를 대량으로 혼용했는데, 그중에서도 작가가 의도적으로(아마도 혼종성을 강조하기 위해) 또는 비의도적으로(아마도 중국어 문자인 한자로 표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들은 옮긴이들 역시 웬만하면 한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 밖에도 옹근이들은 몇 가지 사소한 시도를 했다. 예를 들면, 작가는 이런저런 이유로 작품 속에서 느낌표인 !를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자칫하면 한국인 독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삭제 또는 다른 문장부호로 대체했다. 그리고 이 점은 다른 문장부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했다. 또한 가지 예를 들면, 중국식 속담이나 시구 또는 독특한 표현을 옮길 때 가능하면 원래의 표현을 살리되 때로는 비슷한 내용의 속담이나 표현으로 바꾸어 옮겼다.

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작품을 창작하고 한국에서 출판을 허락해 준 작가 예쓰다. 그는 현재 폐암으로 투병 중인데, 우리의 이 작업이 조금이나마 그에게 정신적인 위안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도 조만간 꼭 완쾌하여 다시금 홍콩 문학과 세계문학에 더욱 훌륭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다음으로는 옹근이들과 함께 타이완·홍콩 문학 및 화인 화문 문학의 연구와 번역에 전념하고 있는 현대중국문화연구실(<http://cccs.pusan.ac.kr/>)의 젊은 연구자들에게 감사한다. 또 모든 일을 기획하고 추진해 준 지만지의 최정엽 주간과 성실하게 편집을 맡아 준 오정원 님에게도 감사한다. 끝으로 그 누구보다도 이 책을 선택하고 읽어 줄 미래의 독자 여러분에게 특히 감사한다. 만일 이 번역에서 원문의 훌륭함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리 옹근이들의 책임이며,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더불어 아낌없는 질정이 있기를 기대한다.